

[대 답]

## 佳山 金致善博士께서 걸어오신 길

參席者：金致善(서울大學校 法科大學長)

金裕盛(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日 時：1983年 7月 10日 午後 2時

場 所：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室

**金裕盛**：先生님의 回甲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先生님의 回甲을 記念해서 法學研究所에서 法學 第24卷 2號와 3號를 統合하여 선생님의 華甲記念論文集으로 發刊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즈음해서 그동안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學問과 人生의 旅程에서 간직하시게 된 많은 사연들 중 後輩教授들이나 弟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 관하여 그 片鱗이나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致善**：수고를 꺼져드려 퍼송한 마음 글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法學研究所에 깊은 감사말 드립니다.

**金裕盛**：그럼 먼저 선생님께서 出生하신 후 어린 時節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저의 어린 시절이라 하면 出生해서 國民學校를 卒業하기까지 平安北道 鐵山郡 栢梁面 嶺洞에서 자라나던 시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원래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農夫셨는데 그것도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小作農이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운 家庭에서 칠남매의 二男으로 出生하였습니다. 父親께서는 가난한 農夫이시면서도 基督教信仰을 지키시는 분이셨는데, 어려운 生活가운데서도 洞裏의 教會에 나가셔서 남을 도우시면서 教會生活를 하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고 가난을 克服하신 것

같아요.

**金裕盛**：先生님께서 지금도 基督教信者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信仰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金致善**：그렇지요. 어머니 배안에서부터 基督教을 믿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요.

**金裕盛**：母胎信仰이시군요.

**金致善**：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光東小學校가 있는 영동이라는 곳은 몇가구 밖에 살지 않는 두메산골이었지요. 여기서 교회가 運營하는 국민 학교——오늘날 말로하면 미션스쿨이라고 볼 수 있지요——를 졸업했습니다.

**金裕盛**：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中學時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로는 선생님께서 日本에서도 中學校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致善**：제가 小學校를 졸업한 후에는 가정형편상 中學校에 進學할 수 없어서 2년동안 신의주에 있는 형님댁에 가서 그분을 도와드리다가 나중에 형님의 도움으로 日本의 東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英數學館에 들어가서 英語, 數學, 漢文을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한 후 동경변두리에 있는 埼玉縣의 中學校 2學年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4학년 까지 공부하다가 4학년 말 12月 8日 大東亞戰爭이 일어나게 되

있죠. 그러자 故鄉 계신 부모님께로부터 빨리 돌아오라는 연락이 와서 결국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해 겨울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金裕盛** : 解放을 맞이 하신 후 大學에 진학하시기 까지 약 2년간의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金致善**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의주에서 8·15解放을 맞게 되었습니다. 蘇軍이 北韓에 진주하기 전에 신의주에서는 무질서 상태 속에서도 목사님들의 주도 아래 시민들이 自治委員會를 組織하여 여기서 행정을 담당하였는데 저는 목사님을 도와드리면서 보냈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中學生들이 中心이 되어 基督教精神과 民族主義에 입각한 愛國運動이나 反共運動을 했었는데 나도 이러한 學生運動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 3·8선을 넘어 越南했던거지요.

**金裕盛** : 3·8선을 넘어오시게 된 동기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金致善** : 그 당시에 韓景職·尹夏榮 목사님 등 美國出身 교회지도자들을 남한으로 피신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비등하였는데 그 책임을 제가 맡게 되어 그 두분을 모시고 3·8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번 3·8선을 넘다가 1946년 가족이 전부 이남으로 넘어 왔지요.

**金裕盛** : 그러면 3·8선을 넘어오신 얼마 후에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 入學하셨습니까?

**金致善** : 解放後 그해 가을에 法學專門學校가 처음으로 學生募集을 하여 이에 응시하여 入學하였고 그 후 얼마 안되어 法學專門學校와 京城帝大 法學部가 합쳐서 國立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法科大學 學部 1學年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金裕盛** : 그러면 이때 法學이라는 學問과

처음으로 접하시게 되었는데 특별히 法學專門學校에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金致善** : 내가 法學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중학교 시절에 싹텄다고 할수 있죠. 그 당시 한 日本人 목사를 매우 존경했었는데 그 분은 日人의 軍國主義를 批判하시고 소극적으로나마 軍國主義에 抗拒하신 분이셨어요. 그 분은 日本中央大法를 졸업하시고 또 神學을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한번은 그분이 新聞에 쓰신 法律關係의 글을 읽고 法律知識이 있으면 牧會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또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은 처음 法學專門學校에 들어갈 때는 法曹人이 된다고 보다는 장차 神學을 해서 牧會活動을 하려했었으나 그 후 점차 생각이 바뀌어 法學이라는 학문에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學問에 종사하게 되었던거지요.

**金裕盛** : 그 당시와 지금의 法科大學은 매우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의 法科大學 學窓時節中 특히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 : 당시의 法科大學은 청량리부근에 위치하였는데 그 때 法律書籍을 읽으려면 文理大 圖書館까지 가야 비로소 구할 수 있었고, 교통도 매우 나빠 전차 한대 단이 왕래하던 시절이어서 무엇보다도 法科大學校 舍를 中央에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그리고 또한 學生統一戰線이라는 南勞黨의 조직이 大學에 침투하여 學園秩序가 문란하였기 때문에 學園의 安定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했었죠. 특히 校舍確保問題에 있어서는 學生들이 일찌 단결하여 다소 強壓的인 手段이긴 하였지만 그후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동숭동의 美術大學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金裕盛** : 그러면 선생님께서 法科大學을 졸업하시기 전에 6·25를 맞이하게 되셨고

부득불 부산으로 피난하셨어야 했을 터인데 부산피난시절까지의 법과대학을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金致善** : 당시 文敎部長官이셨던 安浩相長官의 지도아래 1949년 學徒護國團이 創設되었는데 저는 學徒護國團 常任委員會의 議長으로서 活動하여 學園의 친좌익계 학생들을 선도·계몽하고 그들에게 反共教育을 실시했었죠. 6·25동란이 발생했을 때 저는 4학년 在學生으로서 法科大學내에서는 학도호국단 학도대장을 맡고 있었읍니다.

6·25가 발발하자 저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겨우 漢江을 건너 水原에서 汽車를 타고 釜山으로 갔읍니다. 釜山에서는 옛날 저의 英語先生이시던 Mr. Gray를 만나서 그의 紹介로 通信部隊에서 通譯일을 약 두달 程度 했읍니다. 그후 서울이 收復되자 10月末 부산에서 배를 타고 仁川에 와서 서울로 다시 들어갔읍니다.

**金裕盛** : 釜山에 계실 때의 法科大學生活은 어떠하셨읍니까?

**金致善** : 1·4 後退 以後의 釜山에서의 生活이 本格的 避難時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釜山 서대신동에 서울大學校 戰時大學이 設置되었고 法科大學도 이와 같이 있었지요. 1951年 9月 慶南女高講堂에서 卒業式을 거행했는데 당시 70~80名 程度 卒業한 것으로 記憶이 됩니다.

卒業後에는 美軍 第55補給軍團에서 支配人格으로 일했는데 여기에서 勤勞者들의 實狀을 많이 배울 수 있었읍니다. 그後 美國으로 가기 위해 美國公報院 人事課로 자리를 옮겼지요.

**金裕盛** : 이때가 1951년이었는데 언제 美國으로 가셨읍니까?

**金致善** : 그 當時에 美國을 가기 위해서는 文敎부와 國防部の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節次가 많았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다행히 이겨내고 1952

年 9月 美國으로 갈 수가 있었읍니다. 이때에 韓景職 牧師님과 當時 法大學長이시던 高秉國 教授님의 助言과 도움을 많이 받았읍니다.

**金裕盛** : 당시에 어떤 法을 專攻할 것인가를 대략 定하셨읍니까?

**金致善** : 그 當時 高秉國 教授님께서 勞動法이나 法哲學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助言이 있었었고, 또한 제가 美軍部隊補給倉에서 근무하면서 勤勞者의 처참한 상황과 朝鮮運送幹部들이 勤勞者에게 가야할 救濟物品들을 橫領하고 또한 勤勞者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이 勤勞者들을 위해서 勞動關係法을 工夫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었읍니다.

**金裕盛** : 그러면 美國留學生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 : 제가 美國에 3年半 정도 있었는데 1年 동안은 韓景職 牧師님의 주선으로 Washington州에 있는 Whitworth College에서 B.A. degree를 받았고, 그후 Charles Gregory 教授에게 노동법을 배우기 위하여 Chicago Law School에 入學을 했읍니다. 그런데 Gregory 教授는 내가 도착하기 두달 전에 너무 liberal하다는 理由로 그 大學에서 해임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아쉽게도 Gregory 教授의 강의는 들을 수 없었지만, 다른 勞動法 教授의 講義와 其他 法律科目의 강의를 들었읍니다.

**金裕盛** : 美國에 계시면서 勞動法 및 한국에서 하지 못한 다른 法律工夫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로군요. 그리고 언제 歸國하셨읍니까?

**金致善** : 1953年 9月 Chicago Law School에 가서 1955年 1月 M.C.L을 끝내고 돌아왔읍니다. 同年 3월에 韓景職 牧師님과 의 約束대로 崇實大學의 專任講師로 들어가서 서울法大에 時間講師로 出講했읍니다.

**金裕盛** : 그 以外에 다른 法實務에 從事하신 것은 없으셨읍니까?

**金致善** : 이에 대해서는 韓國法學院에 관해 이야기해야겠군요. 1956年 李承晩 大統領이 法律分野에서 日本의 殘滓를 없애고 美國의 民主的 法律制度를 導入하기 위한 機關을 만들 것을 指示했는데 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韓國法學院입니다. 이것은 法學界와 法曹界의 共同的 對話의 廣場의 役割을 하였는데 제가 1964, 5년까지 이 韓國法學院의 Secretary General을 擔當했습니다. 同法學院의 地方巡回講演, 「法の 날」 制定 등에 저도 關與하였습니다.

**金裕盛** : 이번에는 政治的 激動期였던 1960年代의 生活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때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金致善** : 4·19에 대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當時 서울文理大 數學科 3學年이었던 저의 막내 同生이 희생된 것입니다.

**金裕盛** : 教授님의 勞動法總論 序文에 「4·19에 희생된 同生 致浩君에게」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서울法大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金致善** : 4·19, 5·16 以後 學制의 개편이 있어서 崇實大學의 法學科가 廢止되었고 當時 서울法大 學長이시던 劉基天教授님의 권유로, 1963年 法大 副教授로 왔습니다.

**金裕盛** : 그러면 法大에서는 어떤 講義를 해 오셨습니까?

**金致善** : 제가 맡은 것으로는 勞動法講義, 英美法原書講讀, 勞動法特講, 社會保障法 등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講義해 오고 있습니다.

**金裕盛** : 이제 勞動法學 뿐만 아니라 勞動政策 등 實務分野에도 종사해 오신 교수님의 勞動法에 대한 所感을 듣고 싶습니다.

**金致善** : 제가 勞動法을 시작했을 때는 그 분야의 先輩들이 별로 없었고 參考文獻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日本의 책이나 論文 등도 많이 보았지만 그 表現이나 論述의

展開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예로서 南勞黨이 많이 使用하였던 勞動者라는 말 대신에 勤勞者라는 말을 使用하였던 것을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어언 3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勞動法學者들과 그들의 研究業績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새삼 보람을 느낍니다.

**金裕盛**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執筆하신 「勤勞者의 團結權」에 대한 博士學位論文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 : 노동법의 두 支柱는 勤勞者의 團結權을 中心으로 한 團體法과 근로자의 勤勞基準을 中心으로 한 保護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論文의 主題를 擇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意味에서는 그 歷史的 發展으로 보나 實際的으로나 後者가 無難하고, 團體法部分을 學位論文으로 다룬다는 것은 勇氣를 必要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後進的 經濟與件과 對北僑와의 關係 등으로 인해, 그것을 論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努力을 해서 結局은 勤勞者의 團結權을 擇하게 되었고 비록 不足하나마 論文을 完成했고, 지금도 이에 대해서 제 자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金裕盛** : 教授님의 論文은 특히 不當勞動行爲분야에 있어서는 學問的 approach 뿐만 아니라 實務的 approach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教授님께서 勞動立法分野에 關係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 : 우리나라의 最初の 勞動立法은 1953년에 制定되었고, 1963年 改正되었는데 制定 當時에 저는 美國에 있었고, 1963年 改正當時에는 學界의 많은 參與가 기대되었지만, 學問的 背景이 별로 없는 몇몇 專門委員들이 改正에 參與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勞動立法에 關與한 적은 없고 side에서 우리들의 立場을 強調하고 몇가지 問題에

대해 그 專門委員들과 論爭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金裕盛** : 教授님께서도 國際勞動法分野에도 많이 關與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 : 제가 1963年 歐羅巴旅行을 하게 되었는데 當時 保社部長・次官이 비록 ILO의 加入은 힘들더라도 社會保障協議會의 加入을 타진해 보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同協議會의 事務長을 만나 長官이 써준 便紙를 보이고 해서 즉석에서 加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LO의 加入을 타진해 보기 위해 當時 ILO의 事務總長이던 Mr. Mose를 만나던 중 Benjamin Aron 教授의 紹介를 받고 그의 추천을 받아 個人的으로 國際勞動法 및 社會保障學會에 加入했습니다.

同學會에 加入한 後 처음으로 1964年 프랑스 리옹에서 열렸던 同學會의 第5次大會에 參席하였고, 그 後 계속적으로 參與하여 個人的으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同學會는 ILO에서 後援하고 있기 때문에 相當히 많은 活動을 벌이고 있습니다. 4年前 독일 뮌헨에서 열렸던 第9次大會에서는 한국이 正式執行理事國이 되었고, 작년 美國 Washshington에서 열렸던 第10次大會에서는 아시아지역 副會長으로 제가 當選되었습니다. 그리고 同學會의 第2次 아시아지역 學術회의가 올 9月 서울에서 열리고 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國際勞動法 및 社會保障法學會에는 아시아와 大洋洲 국가中 우리나라가 가장 깊이 關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裕盛** : 우리나라가 ILO에 加入하고 있지 못한 不利한 位置를 學會活動을 통해 cover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國際勞動學會의 活動을 하시면서 느끼신 지금의 國際勞動法學會의 現況, 그리고 우리나라 勞動現實과 勞動法學會活動

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勞動法學會의 將來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 : 앞서서도 學位論文題目을 정하면서 신경을 썼다고 말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近代勞動關係法은 時代的으로 크게 兩分됩니다. 독일 바이말 勞動法과 美國의 와그너 勞動法時代에는 勤勞者의 強力한 團結權이 勞使의 對等한 關係를 維持할 수 있게 해주어 勤勞者의 地位를 向上시켜 준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2次世界大戰後 獨逸 본 勞動法과 美國 대프트 하트리 勞動法時代에 의서는 勤勞者의 강력한 團結權을 중심으로 한 勞動關係法體制를 벗어나서, 勞使協議와 勤勞者의 經營參加의 形態로 時代的으로 發展하고 變化해 가고 있어요. 이런 狀況에서 우리나라의 勞動法學이, 특히 團體法的인 側面에서, 취하여야 할 立場이 무엇인가, 그리고 勞動組合이라는 組織의 位置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문제되지요.

數年전에 勞使協議會法이 制定되어, 과거의 勞動組合의 機能이나 任務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勞使協議會라는 制度랄까 옷을 입고 活動을 시작했고, 勞動組合의 團體交涉도 工場・職場의 單位內에서만 可能하고 그 밖의 上位團體의 指導・協力은 絶對 不可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勞動團體法을 研究함에 있어서, 勞動組合의 團結權의 行使를 위주로 하여 發展해온 勞動法의 基礎를 버리지 않으면서 集團的 勞使關係를 考察해야 하는데, 政府施策이나 社會要請이 勞使對立을 억제하려 하고 工場새마을운동등에서 勞使協助가 強調되는 現時點에서, 韓國勞動法이 처한 위치는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심각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金裕盛** :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學問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소감과 그리고 여러가지 意見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도 篤실한 基督教信者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生活하

시면서 가지고 계신 生活信條나 生活哲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金致善** : 生活信條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전 朝鮮日報의 一事一言에서 隨分 즉 분에 따라 行動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수년전 부산해수욕장 옆 내소사에서 徐燉珏先生님과 함께 그곳 주지스님이신 해안스님과 일주일간 같이 이야기하며 지낸 적이 있었는데, 내소사를 떠날때 해안스님께서 桂山이라는 아호를 주시면서 글을 써 주신 “隨分救世 物我不二, 愛人如己 似應神命”, 즉 자기 분수에 따라 일을 하면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처럼 사랑하면 이것이 곧 신의 명령이 아니겠는가라는 글에서 나온 표현이지요. 나에게 生活信條라는 것이 있다면, 분에 따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法科大學의 行政을 함에 있어서도 무리한 行政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桂山이라는 아호는 險山峻嶺이 아니라 아름다운 산처럼 圓滿하고 無難한 生活을 한다는 나의 生活哲學을 그대로 表現해주는 것이기에, 桂山이라는 아호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지어주신 해산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金裕盛** : 선생님의 隨分救世하시고 愛人如己하시는 生活信念은 실제로 선생님을 접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선생님께서 걸어 오신 길 특히 學問의 길 그리고 生活의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學問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生活에 있어서도 健安하시고 學問的 發展이 있으시길 간절히 祈願합니다.

**金致善**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